

노인의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덕순, 정명희
중원대학교

노인의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덕순*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명희**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학

주제어 노인, 죽음불안, 삶의 질, 여가활동

요약문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 345명이 응답한 분석 자료를 SPSS 2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의 위계적 분석을 이용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의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기울기와 교차여부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였으나, 죽음불안과 여가활동, 삶의 질과 죽음불안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써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노인의 두려움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말에 대한 불안을 여가활동이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죽음불안과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정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규명한 것이다. 이에 노인의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연관된 사건, 짧은 시각에 대한 지각 등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는 효과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와 사망률 저하로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는 1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3.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빠르며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길어진 노년기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활동과 경제력, 건강, 가족들의 지지,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김진원, 2020; 조경옥 외, 2011; 임후남, 2020; 조성희 · 유용식, 2016; 신용석 외, 2017).

노화 현상으로 신체적 기능과 질병에 대한 우려로 노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질병 등의 요인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신체적 노화를 급속도로 진행되는 요인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정명희, 2022; 박순미, 2011; 노재현, 2018).

신체적인 기능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권오균, 2008; 김미령, 2006),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이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김진원 · 이금룡, 2020; 허준수, 2002; Gabriel and Bowling, 2004). 이는 중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계속해서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간헐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삶의 질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Decarlo, 1974).

노화과정에 의한 노년기의 죽음은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종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죽음은 인간발달에서 최종적인 주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죽음을 “소생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종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죽음불안으로 보았다. 죽음불안은 노인의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요인이다(Kaplan and Sadok, 2000).

따라서 노인의 죽음불안은 삶의 질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허정무, 2001). 노인의 여가활동은 역할 상실감을 해소하고, 자기존중과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며 사회적 역할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나아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Abdel-Khalek, 2005; 황길주·정명희, 2021).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은 심리적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죽음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안과 여가활동 간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에게 여가활동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고독, 소외와 역할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므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으며(곽미정, 2013; 김수경 외, 2018), 죽음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문상정·박상훈, 2018; 이은주, 2014).

이처럼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가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노년기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김진원·임구원, 2020).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로 여가활동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여가활동을 통한 죽음불안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여가활동을 통해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지지기반 마련 및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불안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 검증은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죽음불안과 여가활동, 삶의 질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죽음불안이 높으면 노인의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2. 노인의 죽음불안, 삶의 질, 여가활동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1.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는 죽음불안의 감소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죽음불안

일반적으로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 공통점으로 느끼는 감정으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 것이 공통적인 감정이다. Lonetto와 Templer(1986)는 노인은 신체기능이 약화되고, 주위사람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죽음불안을 겪게 되는데 죽음불안은 정서적

긴장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노년기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lass, 1990; temper, 1970).

죽음불안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마지막 단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이별에서 오는 두려움, 죽어가는 과정과 내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사후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한다(최외선, 2007; 김진수, 2016).

노년기의 고독감과 죽음불안의 상관관계에서 고독감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어 죽음생각의 빈도가 높아지고 죽음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의 삶의 질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이며,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의 삶의 질에 죽음불안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영기, 2000).

2.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정신적, 신체적 및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본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한다(Padilla, 1985). 삶의 질은 다른 용어로 삶의 보람,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사기(morale), 행복(happiness), 안녕감(well-being),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상위 개념으로 사용된다(최현, 1997; Bowling, 2003).

노인의 삶의 질은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물질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주관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이란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행복감,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 같이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개념화한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생활만족도 및 행복감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며 성인 및 노인 발달의 척도로써 건전함을 상징하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임주영·전귀연, 2003).

Brandburn(1969)은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정서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Ryff(1989)는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이 뚜렷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강한 동기와 자기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이은희, 2008).

3. 여가활동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의 고독, 허탈감,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황남희, 2014). 노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기분전환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활동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가활동은 성공적인 노화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료함보다 여가활동 자체가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노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생산적이며 융합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허정무, 2001). 노인에게 여가활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노인문화로서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며, 고독, 소외와 역할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Wilfley and Kunce, 1986).

노인이 운동 프로그램 참여 활동 후 삶의 질이 좋아졌으며 운동 프로그램 활동들이 노인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이승범, 2004). 신체적 건강이 노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이 중년과 노인의 우울과 고독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준·엄인숙, 2008).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종범, 2007).

4. 죽음불안, 삶의 질, 여가활동 간의 관계

노인의 사회모임 참여나 여가활동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본인 배우자의 죽음과 은퇴에 대해서 오는 상실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해 고독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종교 생활로 하여금 노인은 자신의 현실과 기대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unsberger, 1985).

오승철(2008)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불안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신체건강 점수가 높아질수록 죽음불안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전영기(2000)는 사회활동과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서 죽음불안의 차이가 없는 반면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순화 외(2020)는 노년기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참여정도는 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인의 심리적 문제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은숙(2019)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교활동이나 여가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자원과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연주(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고독과 무력감이 클수록 죽음불안이 높았다. 이는 고독감과 죽음불안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고독감이 증가할수록 노년기의 특징적인 부정적 성격성향이 강해지고, 삶의 질도 낮아지게 되는 요인으로서 죽음을 생각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박윤자(2018)의 연구에서 사회활동 정도는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말하며, 이것은 일상생활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라고 했으며, 사회활동 정도는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문상정과 박상훈(201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경험과 여가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죽음불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문태언과 변상해(2012)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 중 종교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노인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삶의 질은 좋아졌으며, 운동 프로그램 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이승범 2004). 또한, 신체적 건강이 노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종범 2007).

위의 선행 연구와 달리 이은주(2013)는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우울감과 죽음불안의 구조적 관계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경험에 따른 죽음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철(2010)은 자아통합감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면서 여가활동의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불안은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음성군, 진천군), 충청남도(천안시, 논산시, 예산군)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 3곳, 경로당 43곳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방법으로 했다. 본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노인 인구수가 전국 7위(보건복지부 통계, 2020) 지역으로 표본을 구하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이라 본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에 선정하였다. 그러나 설문지 해독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는 읽어주고 자가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조사는 지역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하였고, 총 36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34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죽음불안

Templer(1970)가 제작한 죽음불안 척도(Templer's Death Anxiety Scale :DAS)를 고효진 외(2006)가 번안한 것을 김진수(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을 역코딩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Temper는 DAS가 일요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고효진 외(2006)의 연구에서 4요인의 구조로 밝혀내었다. 5개의 하위요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죽음연관 사건에 대한 두려움 6문항, 죽음생각 부인 2문항, 짧은 시간의 지각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등간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을 사용한다. 김진수(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9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31 ~ .70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의 Cronbach's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2) 삶의 질

삶의 질 척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World Health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100(WHQOL-100)을 기초로 하여 민성길 외(2000)가 개발한 한국판 WHOQOL-BREF를 재구성한, 임헌우(2020)의 연구 설문척도를 사용했다. 4가지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건강 7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건강 영역 3문항, 생활환경 영역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등간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헌우(20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삶의 질 Cronbach's α 계수는 .92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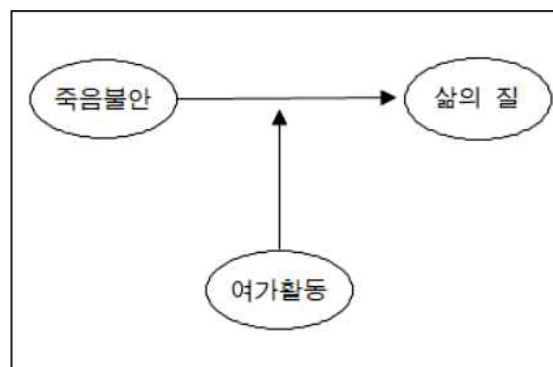
김순기(2000)의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종교 활동, 신문, 책읽기,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가벼운 운동, 동창회, 친목회 모임, 외식이나 쇼핑 활동이었다. 이중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기타 모임 참여하기 문항을 5개 문항을 추가한 이정희(2009)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적극 참여' 5점, '자주 참여' 4점, '보통참여' 3점, '거의 참여안함' 2점, '전혀 참여안함' 1점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1점, 보통이다 2점, 참여한다 3점으로 변수를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이정희(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Cronbach's α 계수는 .61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 20.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의 파악은 기술통계(왜도, 첨도)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지 문항의 문항내적 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α 계수로 확인하였으며, 상관관계는 적률 상관계수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분석을 이용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5.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불안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 후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0.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이 31.3%, 여성이 68.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 70세가 36%로 가장 많았고, 71 ~ 75세 (18.8%), 76 ~ 80세(18.5%), 81 ~ 85세(17.6%), 85세 이상이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35.4%), 건강하지 않음(26.5), 건강함(25.6%), 매우건강함(7.7%), 매우건강하지 않음(4.8)로 나타났으며,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38.1%), 50만원 미만(25.6%), 100만원 ~ 150만원 미만(14.3%), 200만원 이상(12.5%), 150만원 ~ 200만원 미만(9.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다(56.5%), 사별(35.7%), 이혼(4.2%), 기타(1.8%), 동거(0.6%)순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변수의 산포도는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SD)의 수준과 함께 중심의 경향을 평균(M)으로 검증하였다.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통해 자료의 정규분포성 여부를 파악하였다(신동운 2019; West et al., 1995). 이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죽음불안 최대값은 5.00점, 평균(M)=2.97점(± 0.70)이었으며, 여가활동의 최대값 3점, 평균(M)=1.63점(± 0.51)이고 삶의 질의 최대값은 5점, 평균(M)=3.33점(± 0.6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불안의 하위변인에서는 짧은 시각에 대한 지각의 평균(M)에서 약간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변수는 왜도와 첨도의 수치에서 절댓값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 분포성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et al., 1995; 신동운 2019 재인용).

3.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노인의 죽음불안과 여가활동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상관계수 $r=0.402$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여가활동 참여를 할수록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여가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관계수 $r=-0.135$ 로 $p<0.05$ 수준이었으며, 삶의 질과 죽음불안의 상관계수 $r=-0.464$ 로 $p<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죽음불안을 크게 인지할수록 여가활동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죽음불안이 크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기술통계

(n=345)

변인	하위변인	최솟값	최댓값	M (SD)	왜도	첨도
죽음불안		1.00	5.00	2.97(.70)	-.483	.217
	두려움	1.00	5.00	2.94(.85)	-.392	.019
하위 변인	죽음연관 사건	1.00	5.00	2.94(.80)	-.317	-.191
	죽음생각 부인	1.00	5.00	2.70(1.10)	.027	-.850
	짧은시각 지각	1.00	5.00	3.41(1.02)	-.587	-.256
여가활동		1.00	3.00	1.63(.51)	.728	-.180
삶의 질		1.67	5.00	3.33(.63)	.058	-.116

〈표 2〉상관관계

(n=345)

구분	1	2	3	3-1	3-2	3-3	3-4
1. 여가활동	1						
2. 삶의 질	.402**	1					
3. 죽음불안	-.135*	-.464**	1				
3-1. 두려움	-.085	-.421**	.879**	1			
3-2. 죽음연관사건	-.155**	-.387**	.881**	.637**	1		
3-3. 죽음생각부인	-.160**	-.449**	.634**	.533**	.393**	1	
3-4. 짧은시각지각	.013	-.138*	.604**	.407**	.469**	.176**	1

**p< .01, *p< .05

4.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검증은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정보손실이 없어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평가된다. 검증방식은 아래의 표 3에서 제시된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다중공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터링(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의 종속변수의 변화 차이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절회귀분석 검증방식에 따라 노인의 죽음부담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불안과 하위변인,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로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3〉 조절효과 검증방식

단계	회귀식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1 X_2 + (\varepsilon)$
1	조절변수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2	투입순서는 독립변수→조절변수→상호작용변수(독립×조절)를 투입한다.	
3	새로 투입된 변수에 의한 설명력 증가 및 변수의 유의성을 종합하여 파악한다.	

주 :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센터링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 죽음불안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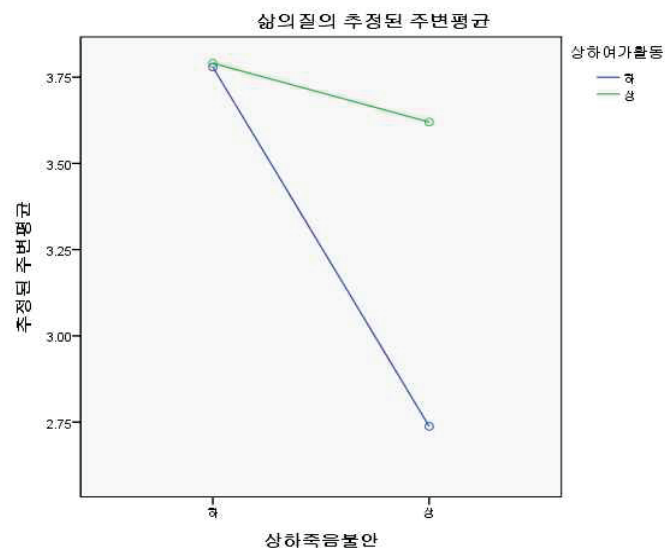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에서 죽음부담 R² 증가량은 .215로 $\beta = -.464$,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2에서 R² 증가량은 .117로 죽음부담 $\beta = -.417$, 여가활동 $\beta = .316$ 이며 두 변수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R² 증가량은 .027로 죽음부담 $\beta = -.418$, 여가활동 $\beta = .360$, 상호작용 변수 $\beta = .164$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차와 VIF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따라서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공차	VIF
	β	t	β	t	β	t		
죽음불안	-.464	-9.705***	-.417	-9.363***	-.418	-9.554***	.982	1.019
여가활동			.316	7.759***	.360	8.192***	.975	1.026
죽음불안×여가활동					.164	3.760***	.993	1.007
R ²	.215		.333		.359			
R ² 증가량	.215		.117		.027			
F-value	94.196***		85.324***		63.779***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조절변수의 상·하 집단의 기울기 차이가 크거나 교차하면 상호작용이 있으며, 기울기가 거의 같으면 상호작용이 없다고 해석한다. 그래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절변수의 기울기의 차이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가활동이 낮은 집단에서 죽음불안이 더 발생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여가활동이 높은 집단은 죽음불안이 더 발생해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2.〉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하집단의 유의성 비교

2) 두려움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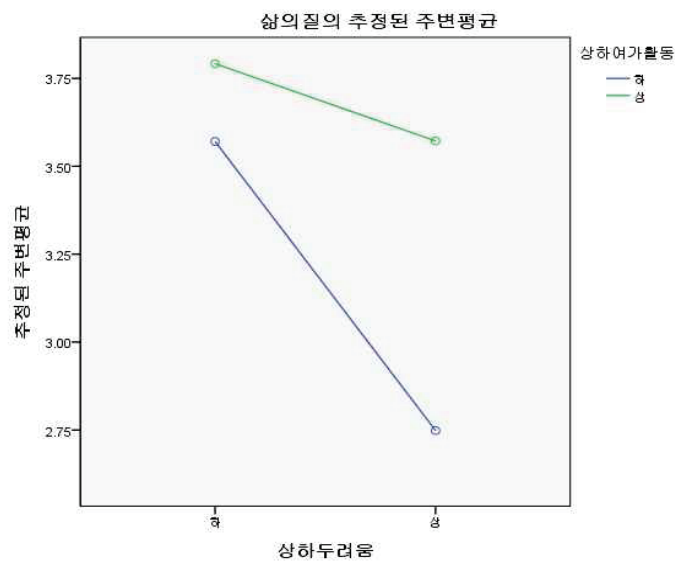
노인의 죽음불안의 하위변인인 두려움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에서 두려움의 R^2 증가량은 .177로 $\beta = -.421$,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2에서 R^2 증가량은 .135로 두려움 $\beta = -.389$, 여가활동 $\beta = .369$ 이며 두 변수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R^2 증가량은 .033으로 두려움 $\beta = -.385$, 여가활동 $\beta = .381$, 상호작용 변수 $\beta = .181$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차와 VIF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노인의 두려움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5〉 두려움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공차	VIF
	β	t	β	t	β	t		
두려움	-.421	-8.585***	-.389	-8.642***	-.385	-8.751***	.992	1.008
여가활동			.369	8.199***	.381	8.633***	.989	1.011
두려움×여가활동					.181	4.123***	.996	1.004
R ²	.177		.312		.345			
R ² 증가량	.177		.135		.033			
F-value	73.696***		77.577***		59.802***			

***p< .001, **p< .01, *p< .05

노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래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절변수의 기울기의 차이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이 낮은 집단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더 발생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여가활동이 높은 집단은 죽음의 두려움이 더 발생해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림3〉. 두려움과 여가활동의 상하집단의 유의성 비교

3) 죽음연관사건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회귀분석

노인의 죽음불안의 하위변인인 죽음연관사건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연관사건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1에서 죽음연관사건의 R2

증가량은 .150으로 $\beta = -.387$,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2에서 R2 증가량은 .120으로 죽음연관사건의 $\beta = -.333$, 여가활동 $\beta = .351$ 이며 두 변수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R2 증가량은 .017로 죽음연관사건 $\beta = -.338$, 여가활동 $\beta = .364$ 로 $p < .001$, 상호작용 변수는 $\beta = .131$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차와 VIF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노인의 죽음연관사건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인의 죽음연관사건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죽음연관사건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공차	VIF
죽음연관사건	-.387	-7.781***	-.333	-7.116***	-.338	-7.306***	.974	1.027
여가활동			.351	7.496***	.364	7.817***	.966	1.035
죽음연관사건×여가활동					.131	2.855*	.987	1.013
R ²	.148		.266		.281			
R ² 증가량	.150		.120		.017			
F-value	60.542***		63.304***		45.757***			

*** $p < .001$, ** $p < .01$, * $p < .05$

4) 죽음생각부인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

노인의 죽음불안의 하위변인인 죽음생각부인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생각부인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 1에서 R2값으로 설명력 20%, 모형2,3에서는 R2 값으로 설명력이 31%로 확인되었으며, 모형 1에서 죽음생각부인의 R2 증가량은 .199로 $\beta = -.449$,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2에서 R2 증가량은 .310로 죽음생각부인 $\beta = -.395$, 여가활동 $\beta = .339$ 이며 두 변수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R2 증가량은 .308로 $\beta = -.393$,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죽음생각부인 $\beta = -.393$, 여가활동 $\beta = .341$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죽음생각부인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공차	VIF
	β	t	β	t	β	t		
죽음생각부인	-.449	-9.311***	-.395	-8.706***	-.393	-8.568***	.955	1.047
여가활동			.339	7.478***	.341	7.459***	.965	1.037
죽음생각부인×여가활동					.013	.285	.974	1.027
R ²	.202		.314		.314			
R ² 증가량	.199		.310		.308			
F-value	86.690***		78.248***		52.052***			

*** $p < .001$, ** $p < .01$, * $p < .05$

5) 짧은 시각의 지각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

노인의 죽음불안의 하위변인인 짧은 시각의 지각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시각의 지각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1에서 짧은 시각 지각의 R² 증가량은 .019로 $\beta = -.138$,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2에서 R² 증가량은 .163으로 짧은 시각의 지각 $\beta = -.143$, $p < .01$ 여가활동 $\beta = .404$, $p < .001$ 로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R² 증가량은 .017로 짧은 시각의 지각 $\beta = -.151$, $p < .01$ 수준에서 여가활동은 $\beta = .403$, $p < .001$ 수준에서 상호작용 변수는 $\beta = .129$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차와 VIF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노인의 짧은 시각의 지각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인의 짧은 시각의 지각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 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짧은 시각 지각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공차	VIF
	β	t	β	t	β	t		
짧은시각지각	-.138	-2.572*	-.143	-2.924**	-.151	-3.113**	.996	1.004
여가활동			.404	8.267***	.403	8.316***	1.000	1.000
짧은시각지각×여가활동					.129	2.662**	.996	1.004
R^2	.019		.182		.199			
R^2 증가량	.019		.163		.017			
F-value	6.613*		38.126***		28.232***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죽음불안의 하위변인들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를 활용한 조절효과 회귀분석방법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가활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었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할수록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영기(2000)의 연구와 같이 사회단체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낮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불안과 여가활동, 삶의 질과 죽음불안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죽음불안을 크게 인지할수록 여가활동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죽음불안이 크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맥락이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김기태, 2019; 김형기, 2019; 송양민 외, 2011; 이영순, 2010). 따라서 이은숙(2019)의 연구처럼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사회적 자원과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절효과를 하는지 검증한 결과, 모형 1~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수의 $\beta = .164$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써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노인의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결과이다. 이는 여가활동은 노인의 죽음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인의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의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여가활동이 낮은 집단에서 죽음불안이 더 발생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여가활동이 높은 집단은 죽음불안이 더 발생해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여가활동이 높은 집단일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발생해도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홍철(2010)의 조절효과 연구에서 여가활동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죽음불안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노인의 두려움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절효과를 하는지 검증한 결과, 모형 1~3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수의 $\beta=.181$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써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노인의 두려움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가활동은 노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인의 두려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려움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의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여가활동이 낮은 집단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더 발생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여가활동이 높은 집단은 죽음의 두려움이 더 발생해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여가활동이 높은 집단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해도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상정 외(2018)의 연구처럼 노인의 여가 경험과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죽음불안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노인의 죽음에 대한 연관사건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연관사건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형 1~3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수의 $\beta=.131$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써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노인의 죽음에 대한 연관사건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는 여가활동은 노인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의 죽음연관사건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노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부인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죽음생각부인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절효과를 하는지 검증한 결과, 모형 3에서 R^2 증가량은 없었으며, 죽음생각부인 $\beta=-.393$, 여가활동 $\beta=.341$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상호작용 변수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노인의 죽음에 대한 짧은 시각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짧은 시각과 여가활동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형 1~3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수의 $\beta=.129$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써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노인의 짧은 시각의 지각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가활동은 노인의 짧은 시각의 지각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의 짧은 시각의 지각과 여가활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의 도표기능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개인내적 특성(신체 건강, 고독, 무력감, 정서적 불안감 등)과 대인관계, 경제력과 경제활동, 가족의 지지, 사회적 관계망과 함께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 적극성 등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써 접근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불안을 여가활동이 완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말에 대한 불안을 여가활동이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와 만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죽음불안과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정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이 갖는 연구의 중요성을 규명한 것이다. 이에 노인의 비관적인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연관된 사건, 짧은 시각에 대한 지각 등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는 효과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북도(음성군, 진천군), 충청남도(천안시, 논산시, 예산군)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죽음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따른 여가활동과 삶의 질 변수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여가활동은 변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수만을 활용하였다. 그래서 여가활동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여가활동 하위변인별로도 죽음불안과 상호작용변수를 분석함으로써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 역시 하위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좀 더 세심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순화 · 최원석 · 김분실, 2020,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가?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55: 127-147.
- 곽미정, 2013, 「노인의 여가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21-29.
- 권오균, 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7-31.
- 김미령, 2006, 「전기 ·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2-222.
- 김수정 · 이현주 · 신혜리 · 김영선 · 2018, 「남성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 정도에 따른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481-485.
- 김진원, 2020, 「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원 · 이금룡, 2020, 「노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종단연구」, 『관광레저연구』, 32(7): 49-68.
- 김진원 · 임구원, 2020,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분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4(4): 11-24.
- 김홍철, 2010, 「자아통합감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재현, 2018, 「노인의 경제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건강생태의 매개효과」, 『GRI연구논총』, 20(2): 287-318.
- 문상정 · 박상훈, 2018, 「노인의 여가경험과 여가만족, 심리행복감, 죽음불안의 구조적 관계」, Tourism Research, 43(4): 45-70.
- 문태연 · 변상해, 2012,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자기존중감 및 죽음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3): 115-120.
- 민성길 · 이창일 · 김광일 · 서신영 ·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 - BREF)의 개발 =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291-312.
- 박윤자, 2012,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와 성공적 노화의 건강증진 효과와의관계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4(1): 183-202.
- 송지준 · 엄인숙, 2008, 「중년과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 고독감간의 관계」, 『관광연구』, 23(1): 43-62.
- 신동윤, 2019,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서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 부적응적 사고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석 · 원도연 · 노재현 · 2017, 「노인의 자산수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216-250.
- 오승철, 2008,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죽음불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학회』, 41:

27-50.

- 이금룡, 2002,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Andragogy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2): 1-22.
- 이승범, 2004,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가 건강 체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교육연구』, 8(1): 1-17.
- 이은숙, 2019, 「독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한국콘텐츠학회』, 19(2): 393-408.
- 이은주, 2013,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4,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 학회지』, 38(4): 51-63.
- 이은희, 2008,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161-178.
- 임선아, 2016,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패널 학술대회자료집』, 13: 892- 903.
- 임주영 · 전귀연,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125-142.
- 임헌우 · 전상택, 2019, 「노후의 삶 운영관리에서 여가프로그램 참여활동이 열정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22(6): 135-148.
- 임후남, 2020, 「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1): 979-994.
- 전영기, 2000,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산정논총』, 1: 199-222.
- 정명희, 2022,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문화산업연구』, 22(3): 205-214.
- 황희남, 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37-69.
- 조성희 · 유용식, 2016,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4): 35-59.
- 최외선, 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4): 755-773.
- 최현 · 김한중 · 진기남 · 주경식 · 이규식 · 손명세, 1998, 「건강수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8(2): 149-165.
- 허정무, 2001,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종교기관의 노인교육활동 참여」, 『한국노년학』, 21(2): 37-52.
-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227-247.
- 황길주 · 정명희, 2021,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 문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문화산업연구』, 21(3): 171-179.
- 황희남, 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37-69.
- Abdel-Khalek, A. M, 2005, “Death anxiety in clinical and non-clinical groups”, *Death studies*, 29(3): 251-259,
- Bowling, A., Gabriel Z., Dykes J., Dowding L. M., Evans O., Fleissig A., Banister D. and Sutton S., 2003, “Let’ s ask them: A national survey of definition of quality of life and its enhancement among

- people aged 65 and over” ,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6(4), 269-306.
- Bran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Counseling Psychology, 66(3), 337-342.
- DeCarlo, T. J, 1974, “ Recreation participation patterns and successful aging” , *Journal of Gerontology*, 29(4): 416-422.
- Gabriel Z. and Bowling, A, 2004,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older people” , *Ageing and Society*, 24, 675-691.
- Glass, J. C, 1990. “Changing death anxiety through death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s” , *Death Studies*, 14(1): 31-52.
- Hunsberger, B., 1985, “Religion. Age.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urces of Religiousness: A Study of Older Persons” , *Journal of Gerontology*. 40(5): 615-620.
- Kaplan, H. I, and Sadock, B. J., 2000, “Learning Theory, In: Synopsis of Psychiatry” , *Behavioural Sciences, Clinical Psychiatry*, 8: 148-154.
- Lonetto, R and Templer, D. I., 1986, *Death anxiety*, Washington: Hemisphere Publishing Corp.
- Padilla, G. V. and Greant, M. M., 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Outcome Variable” , *ANS Adv Nurs Sci.*, 8(1): 45-60.
- Riddick, C. C., 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s” , *Leisure Science*, 7(1): 47-6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2): 165-177.
- Wilfley, D. and Kunc, J., 1986, “Different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exercise”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337-342.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320&CONT_SEQ=366496&FILE_SEQ=322294. (검색일: 2022, 12, 20).
- 조경옥 · 이동기 · 이증섭, 2011, 「100세 시대 도래, 노인의 삶의 질 준비 필요하다」, <http://www.jthink.kr/jthink/2018/inner.php?sMenu=B1000&pno=16&mode=view&no=110>. (검색일: 2023.03.30).

A Study on the Effects of Death Anxiety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Seok, Deok Soon
(Jungwon University)
Jung, Myung Hee
(Jungwon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Key words

Elderly, Death Anxiety, Quality of Life, Leisure Activities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in the effect of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on the quality of life. To verify this,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using the hierarchical analysis of the SPSS 2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was used as the analysis data answered by 345 elderly people. In addition, in order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it was confirmed by the slope and intersection through the chart function of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life and quality of lif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Death anxiety and leisure life, quality of life, and death anxiety al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death anxiety and leisure lif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raction variable.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fear and quality of life, the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fear and leisure lif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raction variable. This confirms that leisure activities play a controll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buffer death anxiety through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접 수 일 : 2023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3년 4월 27일

게재확정일 : 2023년 4월 28일